

‘꼬마 요정’ 8개월만에 ‘은반여왕’... 한국 피겨사 새로 쓰다

■ 싱글 프리스케이팅 상보

김연아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우승

■ 변칙작전 주효

엉덩방아 쪼갬도 여유있게 1위

‘피겨요정’ 김연아(16·군포 수리고)가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성인무대 첫 우승의 쾌거를 이룩했다. 김연아는 19일(한국시간) 새벽 프랑스 파리 베르시 실내빙상장에서 펼쳐진 대회 3일째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명의 선수 중 가장 높은 119.32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전날 치러진 쇼트프로그램에서 65.22점으로 1위에 올랐던 김연아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받은 119.32점을 합쳐 총점 184.54점으로 금메달 경쟁에 나선 일본인 안도 미키(174.44점)를 따돌리고 종합 1위에 등극했다. 국내 피겨 선수가 ISU 시니어 그랑프리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김연아가 사상 처음이다. 지난 3월 세계 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주니어한국빙상 100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한 김연아는 8개월만에 시니어 무대까지 제패하면서 세계 정상급 선수로 급성장했음을 증명했다. 이날 11명의 선수 중 6번째 연기자로 나선 김연아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올 시즌부터 새롭게 프리 스케이팅 곡으로 선택한 ‘The Lark Ascending(종달새의 비상)’의 선율에 맞춰 연기를 했다. 김연아에 이어 9번째 선수로 연기에 나선 지난 1차 대회 우승자 안도 미키는 첫 번째 트리플 콤비네이션에서 넘어지는 실수로 감점을 받아 109.42점을 얻어 총점 174.44점으로 2위로 밀려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초반 고난도 연기 체력열세 극복

체력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찾기 위해 마련한 ‘변칙작전’이 김연아의 사상 첫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금메달의 영광을 불렀다. 김연아는 캐나다에서 열렸던 2차 대회에서도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에 오른 뒤 프리스케이팅에서 체력부족으로 난조에 빠지면서 4위를 차지, 종합점수에서 168.48점을 받아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던 기억을 살려 이번 대회를 맞아 새로운 작전 구상에 들어갔다. 2분40초의 쇼트프로그램은 문제없지만 4분에 달하는 프리스케이팅 연기는 체력적으로 버겁다는 것으로 결론 낸 김연아와 박분선 코치는 이번 4차 대회의 프리스케이팅 연기 순서를 뒤바꾸는 작전에 들어갔다. 연기 초반에 고난도의 콤비네이션 및 스피드 동작을 넣고, 연기 후반에 가벼운 점프를 배치해 초반에 승부수를 잡자는 것. 결국 작전은 그대로 들어 맞았고, 김연아는 초반 어려운 트리플-트리플 콤비네이션(연속 3회전)에 이어 더블 악셀(공중 2회전반)-트리플 토투프(공중 3회전) 연기를 연속으로 성공시키면서 심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 연기 후반에 체력이 조금씩 떨어진 김연아는 공중 3회전 동작 이후 착지에서 불안감을 보인 뒤 마지막 점프인 더블 악셀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하지만 난이도가 낮은 점프여서 감점도 1점에 그쳤다.



김연아가 트로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승하기까지

훈련·코치·연맹지원 3박자 결실

‘피겨요정’ 김연아가 지난 3월 세계 주니어 피겨선수권 대회 정상에 오르면서 국내 빙상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지 8개월여 만에 또 한번 한국 피겨스케이팅 100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김연아는 말 그대로 국내 피겨 역사의 ‘기록 제조기’라고 불릴 만하다. 지금까지 국내 선수가 세계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낸 것은 김연아가 유일하다. 특히 지난 시즌 주니어 무대에서도 한국인으로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김연아는 지난 5일 시니어 데뷔 무대였던 2차 그랑프리에서 동메달을 따내면서 또 한번 국내 피겨 역사를 새로 썼다. 김연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단 2주 만에 이번에는 시니어 그랑프리 정상에 오르면서 현재와 같은 열악한 국내 피겨 환경에서는 절대 깨지기 힘든 대기록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날 따낸 김연아의 총점은 올 시즌 치러진 4차례 그랑프리에서 안도 미키(192.59점)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점수여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실력으로 자라났음을 스스로

입증해 냈다. 김연아의 ‘스타탄생’은 선수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함께 어머니 박미희씨의 지극한 보살핌과 코치진의 조언,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뒷바라지라는 4박자가 제대로 어우러져 나온 결과물이다. 7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신은 김연아는 이내 ‘피겨신동’으로 불리며 중·고교 선배들을 제치고 국내대회 우승을 독차지한 ‘윌 성 부른 떡잎’이었다. 피겨 선수로는 타고난 161cm의 키에 40kg의 신체조건에 높은 점프력이 탁월한 김연아는 이미 국내 무대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나홀로’ 뛰어난 업적을 일구고 있는 김연아는 여전히 열악한 국내 연습 환경과 함께 국내 비인기 종목이라는 굴레를 속에 금전적인 도움을 줄 스폰서 업체가 없어 해외 전지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김연아의 고속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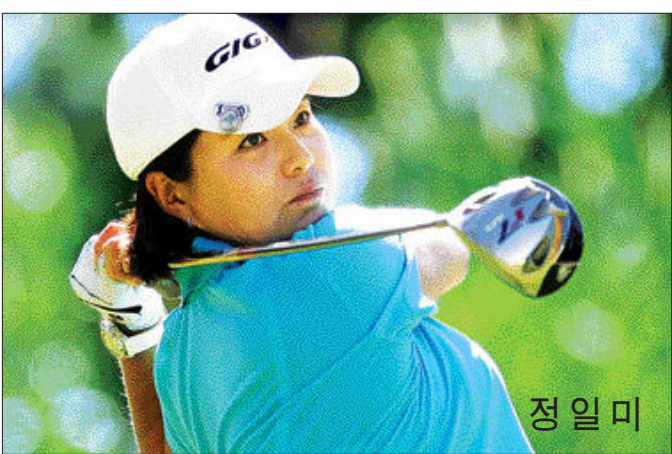
■ 다음 목표는?

“내달 ‘왕중왕’전 석권”

김연아의 올해 마지막 목표는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이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올 시즌 6차례 치러지는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여자 싱글 상위 성적 6명이 출전해 올 시즌 ‘왕중왕’을 뽑는 경연무대다.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까지 김연아는 2차 대회 3위와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피겨 그랑프리 포인트 26점을 얻었다. 각 그랑프리 시리즈 성적에 따라 1위를 하면 15점을 받고, 2위는 13점, 3위는 11점, 4위는 9점 등의 포인트를 얻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일본의 안도 미키가 1차 대회 우승에 따른 포인트를 합쳐 28점으로 그랑프리 포인트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김연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랑프리 포인트 3위는 캐나다의 조아나 로셰트와 미국의 키미 미야스나가 나란히 24점을 얻어 동률을 이루고 있다. 김연아는 사실상 3위권 이내에 들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해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12월 14일부터 17일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일정인 김연아는 일단 오는 21일 귀국한 뒤 체력훈련 위주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가다듬을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미현



정일미

김미현·정일미 최종라운드 진출

LPGA ADT챔피언십 3R

오초아와 100만달러 놓고 격돌

여자골퍼의 만년니 정일미(34·기아골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지막 대회인 ADT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김미현(29·KT)도 최종 라운드에 합류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등 강호들과 역대 최고의 우승 상금 100만달러를 놓고 격돌한다. 정일미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람프인테셔널골프장(파72·6천506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의 불꽃타를 휘둘러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 단독 1위에 올랐다.

김미현도 7언더파 65타를 쳐 정일미에 1타 뒤진 8언더파 208타로 홀리예타 그라나다(파라과이)와 함께 공동 2위로 4라운드에 진출했다. 이전까지의 성적을 따지지 않고 18홀 경기만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4라운드에는 정일미, 김미현, 그라나다와 함께 일본의 간관스타 미야자토 아이(7언더파 209타), 관록의 카리 웹(호주·6언더파 210타), 미국의 신예 폴라 크리머와 나탈리 걸비스, 시즌 상금 랭킹 1위 오초아(이상 4언더파 212타) 8명이 격돌한다. 공동 6위로 출발했던 정일미는 보기 없이

버디 5개에 이글 1개를 곁들여 단독 1위로 올라섰다. 4라운드에서는 이전 성적에 합산되지 않고 18홀 성적만으로 우승자를 가리지만 이번 대회 패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선전이 기대된다. 김미현도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쏟아내는 완벽한 경기로 ‘코리아 파워’를 과시했다. 올 시즌 6차례 우승과 상금 랭킹 1위를 달리며 ‘올해의 선수상’을 확정지은 오초아는 보기 없이 5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8강행 막차를 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김연아가 19일 프랑스 파리 베르시 실내빙상장에서 펼쳐진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시즌 3번째 우승

오리엔트차이나레이디스오픈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최고 시즌을 보내고 있는 신지애(18·하이마트)가 중국에서 세 번째 우승컵을 수직했다. 신지애는 19일 중국 푸젠(福建)성 사먼(廈門)시 오리엔트골프장(파72·6천489야드)에서 열린 오리엔트차이나레이디스오픈 마지막 날 3타를 줄여 4라운드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이미 다승왕과 상금왕, 신인왕을 확정지

은 신지애는 KLPGA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열린 대회를 우승하면서 올해 최고의 선수임을 다시 입증했다. 9언더파 279타를 친 최나연(19·SK텔레콤)이 2위를 차지했고, 마지막날 5타를 줄이며 뒷심을 발휘한 안선주(19·하이마트)가 6언더파 282타로 서보미(25)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박희영(19·이수건설)과 조영란(19·하이마트)은 4언더파 284타를 기록하며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